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05	07. 12	07. 19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성 경 봉 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삽시다(히6~13장, 마1~13장)
2.예배중계-유투브 검색 창에서 **"브레멘한민교회"** 검색해주세요.
3.기도 – 흩어져 있는 한민 식구들의 영, 육간 강건을 위하여
4.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5.6월 생일-장준화 형제(1일) 장용환 형제(7일) 김영희 권사(13일)
6.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형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2020-26호 2020년 06월 28일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90장 다같이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대하 30 : 13 – 22(구p698) (2.Chronik 30:13-22)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91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묵상으로 대신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숨길 수 없는 갈망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스승은 갈망하기만 하면 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스승과 제자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 속에 밀어 넣고 꽉 눌렀습니다. 물 아래에서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을 뒤틀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서야 제자는 겨우 스승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스승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스승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장난입니까? 숨이 막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스승이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을 말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속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몸이 굳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행동이나 말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절대로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 생명의 삶 편집부 제공 –